

4~11월 야외 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 ① 봄~가을철(4~11월) 농작업 야외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 ②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주로 '살인진드기'로 불리는 작은소피참진드기에 물려 감염, 피 빨면 몸집 수십 배로..
- ③ 진드기에 물렸거나 노출 시 진드기 검체를 해당 관할 보건소로 의뢰하면 우리 연구원은 신속하게 '중 분 류동정 및 SFTS병원체 확인 검사'를 수행하고, 결과를 회신하고 있음

- 야생진드기로 인해 발생하는 진드기 매개감염병은 매우 많지만 그 중 4종(쯔쯔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을 법정감염병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 국내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SFTS)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일부 참진드기에 물린 후, 고열, 소화기 증상(오심, 구토, 설사)을 보이는 열성 출혈성 질병이다. 2017년에 국내 272명의 환자가 발생한 이후 매년 250여 명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013~2022년까지 SFTS로 인한 누적 사망자수는 총 319명이며, 국내 평균 치명률이 약20%로 높아, 사전 예방과 환자 조기발견, 적기치료가 중요한 감염병이다.
- SFTS의 주요 매개체는 일명 '살인진드기'로 불리는 작은소피참진드기(*Haemaphysalis longicornis*)이며, 개피참진드기(*Haemaphysalis flava*), 뭇뚝참진드기(*Amblyomma testidunarium*), 일본참진드기(*Ixodes nipponensis*) 또한 매개가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 참진드기는 알, 유충, 약충, 성충의 4단계 발육 과정을 거친다. 각 발달단계로 탈피하려면 숙주동물의 혈액이 필요하므로 지나가는 사람이나 동물 등에 달라붙어 기생한다. 유충과 약충은 4~6일, 성충은 2주 이상 흡혈하는데 이를 통해 다양한 병원체를 전파하는 주요 매개체 역할을 하게 된다.
- SFTS환자는 농작업, 야외활동 등으로 진드기와 접촉할 기회가 잦은 4월부터 증가하고, 특히 6~10월까지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경남지역 SFTS 지역별 발생률(2018~2022년)도 합천, 산청, 함양, 하동 등 농·축산업이 많은 농촌지역에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야외 활동 후에는 진드기가 숨어서 흡혈 할 수 있는 부위(특히 두부나 대퇴부 부근)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혹시나 참진드기에 물렸거나 노출 시, 진드기 검체를 해당 관할 보건소를 통해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의뢰하면 '중 분류동정 및 병원체 확인 검사' 결과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다.
- SFTS는 치명률이 높은 감염병이지만, 진드기에 물리면 무조건 SFTS에 감염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백신이나 치료제가 아직 없어 진드기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야외 작업 시 작업복과 장화를 착용하고, 야외활동 후에는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등 진드기 예방 수칙을 잘 알아 둘 필요가 있다. 만약 진드기에 물렸을 경우, 바로 제거하지 말고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처치하고, 2주 이내에 주요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진료 받는 등 대처방안 또한 잘 숙지해야 한다.